

전주역 주변 35년만의 변신 “품격 높인다”

첫 마중길 FIFA U-20 개막전 맞춰 이달 중순 완공

버스킹공연 등 문화공간 활성화로 지역상권 부활 기대

지난 35년간 호남의 관문역할을 했으면서도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활성화에 밀려 외면받았던 전주역의 주변 환경이 대변신 하고 있다.

사람·생태·문화의 가치를 담은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이 운곽을 드러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를 전면 개선키 위해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면서 역사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역~명주골 사거리구간 백제대로 850m를 문화광장과 명품가로 숲 길 등으로 조성하는 첫 마중길 사업이 오는 20일 FIFA U-20 개막전을 앞두고 최종 마무리 작업중이다.

첫 마중길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처럼 도로 중앙에 사람이 머물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보행광장(폭 15~20m)이 들어섰으며, 전주시민의 현금으로 사들인 다양한 수목의 명품숲도 조성됐다.

전주시는 첫 마중길 광장과 일대 거리를 전주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장터와 벼룩시장, 버스킹공연, 예술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중이다.

시는 특히 전주역 주변에 관광객과 시민이 몰리고 문화가 넘쳐흐르면 지역 역사권 경제가 되살아나고, 한옥마을에만 머물던 전주 관광경제의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호남의 관문인 전주역사의 전면 개선작업이 이뤄지면 전주가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첫 마중길은



전주시는 첫 마중길 사업으로 전주역~명주골사거리구간 백제대로 850m를 문화광장과 명품가로 숲 길 등을 조성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주의 삭막한 첫인상을 밝고 매력 있는 도시, 여유로움이 넘쳐나는 곡선의 도시가 얼굴로 바꾸고, 도시의 패러다임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민선 6기 전주시가 추구하는 사람의 도시, 녹색생태

도시, 여유로움이 넘쳐나는 곡선의 도시가 얼굴로 바꾸고, 도시의 패러다임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민선 6기 전주시가 추구하는 사람의 도시, 녹색생태

도시, 여유로움이 넘쳐나는 곡선의 도시가 얼굴로 바꾸고, 도시의 패러다임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민선 6기 전주시가 추구하는 사람의 도시, 녹색생태

전주시 직영 환경관리원 18명 신규채용

16일까지 원서 접수...체력 평가 강화·첫 상대평가제 도입

전주시가 직영 청소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정소 업무에 종사할 환경관리원 18명을 신규 채용한다.

전주시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전주시 환경관리원 채용을 위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올 상·하반기 퇴직예정자(11명)와 결원지역 총원(7명)을 위한 것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주시에 계속 거주한(2016년 5월 1일 이전 주민등록상 등재자)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 시민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를 원하는 시민은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기간 내에 전주시청 5층 영상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채용방법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4차에 걸쳐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체력평가,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신규채용에서는 우수인원 선발을 위해 기존의 윗몸일으키기와 모래주머니 돌(메고) 50m 달리기 등 체력평가 항목 외에도 왕복 오래달리기 종목이 추가되는 등 평가항목이 강화됐다.

또 응시자의 운동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던 체력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전북취재본부장 nosusu@

젊은 버스커들 군산으로 모여라~

13~14일 예술거리서 경연

군산시가 전국에서 활동하는 버스커들(거리공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끼와 예술감각을 발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군산시민예술촌은 13일부터 이틀간 군산시 개북동 예술거리에서 ‘버스커즈 인 군산 시즌4’ 경연을 진행한다.

예선을 통과한 20팀 가운데 13일 오후 2

시부터 자유 버스킹으로 8팀을 선정하고, 이틀날 경연으로 최고의 버스커즈를 뽑는다. 우승팀에게는 300만원이 주어진다.

김봉근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젊은 버스커들이 실력과 음악의 마음을 뽐내는 무대로 역량 있는 뮤지션 발굴과 도심 공연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susu@

“도자기 빚어보세요”

부안 청자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인기

부안 청자박물관이 직접 도자기를 빚어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확여행단과 가족 단들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청자박물관(부안군 보안면 청자리)은 전문 도예강사가 나서 도자기 제작에 필요한 이론 강의에 이어 흙 반죽부터 성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관광객들은 도예강사의 지도에 따라 모양을 만들고 문양을 넣어 건조한 후 초벌과 재벌 과정을 거쳐 자신이 빚은 완성품을 받아볼 수 있다.

도자기 체험프로그램 덕분에 올해 들어 청자박물관 입장객 수는 3만 160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 6300여 명)보다 67%가 늘었다.

이중 수확여행단과 단체여행객은 2만여 명에 달하며 예약 신청이 끊이지 않는다.

‘제5회 부안 오복마실축제’가 열린 지난 4~6일에는 나들이객 3928명이 청자박물관을 찾는 등 작년 축제 때(1755명)보다 무려 81%가 증가했다.

청자박물관은 또 청자역사실, 청자명품실, 수장고, 특수영상실, 기획전시실 등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국 도자 문화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다.

부안청자박물관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직접 빚는 도자기 체험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다”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더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

만 6300여 명)보다 67%가 늘었다.

이중 수확여행단과 단체여행객은 2만여 명에 달하며 예약 신청이 끊이지 않는다.

‘제5회 부안 오복마실축제’가 열린 지난 4~6일에는 나들이객 3928명이 청자박물관을 찾는 등 작년 축제 때(1755명)보다 무려 81%가 증가했다.

청자박물관은 또 청자역사실, 청자명품실, 수장고, 특수영상실, 기획전시실 등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국 도자 문화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다.

부안청자박물관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직접 빚는 도자기 체험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다”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더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

남원시, 세외수입 운영 전북 최우수시 선정

2년 연속 수상 영예

남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전북 최우수시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책임 징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과태료 징수실적, 우수사례 발표 등 5개 분야 7개 지표를 평가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우수 시·군을 매년 선발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모든 지표에서 우수

한 실적을 거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작년에도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번 수상으로 남원시 세입행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열악한 재정 환경이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전담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부동산 거래 저취에게 맡겨주세요



군산부동산협동조합 설립

군산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지역 최초로 군산부동산협동조합(KRC)을 설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0여명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군산부동산협동조합은 최근 군산부동산협동조합(KRC)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군산부동산협동조합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고객의 맞춤형 투자 상담 ▲국가 산단 활성화를 위한 공장 및 토지거래의 적극적인 방법 강구 ▲원도심이나 골목상권의 재

개발 투자컨설팅 ▲소상공인을 위한 부동산 컨설팅 ▲군산지역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정보를 빠르고 정확한 제공 ▲공인중개사 창업 지원 등 군산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은식 군산부동산협동조합 이사장은 “날로 변화하는 부동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한자레씩 자체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발벗고 나선다

남원한전과 희망동행팀 위촉

남원시는 10일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와 신일종합시스템 남원지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검

침원 15명을 희망동행팀으로 위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장시영 신일종합시스템 남원지점장, 검침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희망동행팀으로 위촉된 검침원들은 기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취약

계층 위기가정 및 전기요금 장기체납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 주민복지과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남원시는 통보받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권 내 지원을 하고 제도권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민간지원 등을 동원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협약 사업을 시작으로 민관협력의 선도적인 지자체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통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마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인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사무소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서·전원주택지

- 함평군 송봉면 월천저수지와 비다인근 대지 1197㎡ 4300만원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7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판서와 농장적합 5억
-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바닷가 전망좋은 땅 6337㎡ 3억9천
- 신안군 지도읍 내암리 13662㎡ 농장·전원생활용 1억원
- 보성군 회천면 전망좋은 바닷가 5360㎡ 매도 4억9000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임야 40만㎡ 판서·전원주택·별장 등 다용도 개발 적합 매도 12억(운조루 유통전시판매)
- 장성군 북이면 면사무소에서 3km, 입암산길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중용 11억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재개발가능지 대지 195㎡ 주택 63㎡ 8800만원
- 장성군 남면 소재지 그린벨트 김나무밭 10958㎡ 투지에 양호 6억8천
- 독립섬 56233㎡ 신안군 임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소촌동 자연녹지 1530㎡ 투지에 양호함 10억원
- 유평 상업지 331㎡ 상가·유평 등 적합 매도 4억3천
- 월산동 보라아파트부근 상가H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함평군 해보면소재지 주거지역 전 4329㎡ 매도 2억원
- 대인동 상업지 787㎡ 주상복합건물 적합 14억3천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797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화순읍 복숭아·매실·김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원

상가건물

- 월산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상업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서구 교동소재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용 적합 49억
- 월산동 대지 126㎡ 건물 297㎡ 은행 4억 매도 6억6천
- 월산동 농성초건너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월산동 윤진각부근 대지 160㎡ 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내에 있는 섬 (팻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 분할 / 지분매매 가능
- 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 매매 - 7억 (평당5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